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통해 본 2050년의 한국경제

2006. 01. 02

이 호 진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hlee@kiep.go.kr]

주요 내용

골드만 삭스는 장기 성장잠재력지수(GES: Growth Environment Score)로 평가한 결과 BRICs 국가들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경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11개 국가(N-11; the Next Eleven)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N-11 중 한국과 멕시코만이 2050년까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BRICs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경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2005년 말 예상치 8,140억 달러에서 2010년 1조 2,900억 달러, 2025년 2조 6,250억 달러, 2050년 3조 6,840억 달러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소득수준은 2025년 51,923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로, 2050년에는 81,462달러로 세계 2위로 올라서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의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1. N-11 국가의 장기 경제성장전망

■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는 2005년 12월 발표한 BRICs 국가들에 대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BRICs 경제전망 업데이트와 함께 향후 BRICs와 같은 경제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11개 국가(the N-11: the Next Eleven)에 대한 경제성장 예측을 발표함.

■ 이들 N-11 국가¹⁾(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지수(GES: Growth Environment Score)로 평가한 결과 한국과 멕시코만이 BRICs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경제로 성장할 것으로 평가됨.

-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평가하는 지수인 GES는 인플레이션 · 재정적자 · 해외차입 · 투자 · 대외개방도 등의 거시경제변수, 전화보급률 · PC보급률 · 인터넷보급률, 교육 정도 · 평균수명, 정치적 안정 · 부패지수 ·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제화 정도 등으로 구성된 지수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적 · 정책적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

- N-11 국가들 중에서 한국과 멕시코는 OECD 회원국으로서 2005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16,741 달러와 7,092달러로 여타 N-11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표 1. N-11 국가들의 경제지표

	거시경제지표			
	인구 (2005년, 백만 명)	2005년 GDP (US십억 달러)	2000~2005년간 평균GDP성장률(%)	2005년 일인당 GDP(US달러)
방글라데시	144	61	5.4	422
이집트	78	91	4.0	1,170
인도네시아	242	272	4.6	1,122
이란	68	203	5.7	2,989
멕시코	106	753	2.6	7,092
나이지리아	129	94	5.1	733
파키스탄	162	120	4.1	737
필리핀	88	98	4.7	1,115
터키	70	349	4.3	5,013
베트남	84	47	7.2	566
한국	49	814	5.2	16,741

자료: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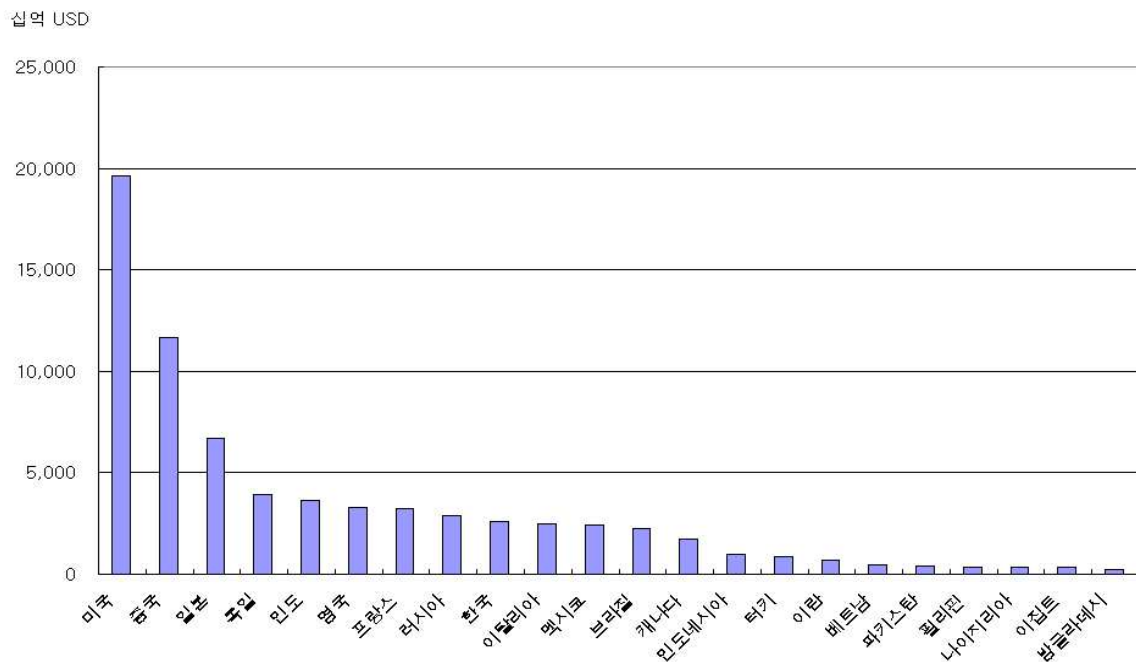
- 1) Goldman Sachs는 N-11을 선정함에 있어서 인구를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음. 따라서 홍콩, 룩셈부르크 등은 향후 경제성장률과 1인당 소득수준 등 경제생활의 질에 있어서는 성공적일 수 있음을 인정함. 그러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BRICs, N-11 국가들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같은 이유로 다수의 중부 유럽의 소국들이나 태국, 이디오피아와 같은 국가들도 논의에서 제외하였음.

■ N-11 국가들에 대한 실질 GDP(2005년 US 달러화 표시), 실질 GDP 성장률, 1인당 국민 소득, 환율에 대한 예측에 있어, 실질 GDP 증가의 2/3는 실질 GDP의 자체성장률로부터, 나머지 1/3은 각 국가 통화의 평가절상에 기인한 것으로 가정함.

■ 2005년 화폐가치로 환산한 2025년 실질 GDP는 미국 19.6조 달러, 중국 11.7조 달러, 일본 6.7조 달러의 순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2.6조 달러로 세계 9위의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그림 1 참고).

그림 1. G7, BRICs, N-11 국가들의 2025년 예상GDP

(단위: 십억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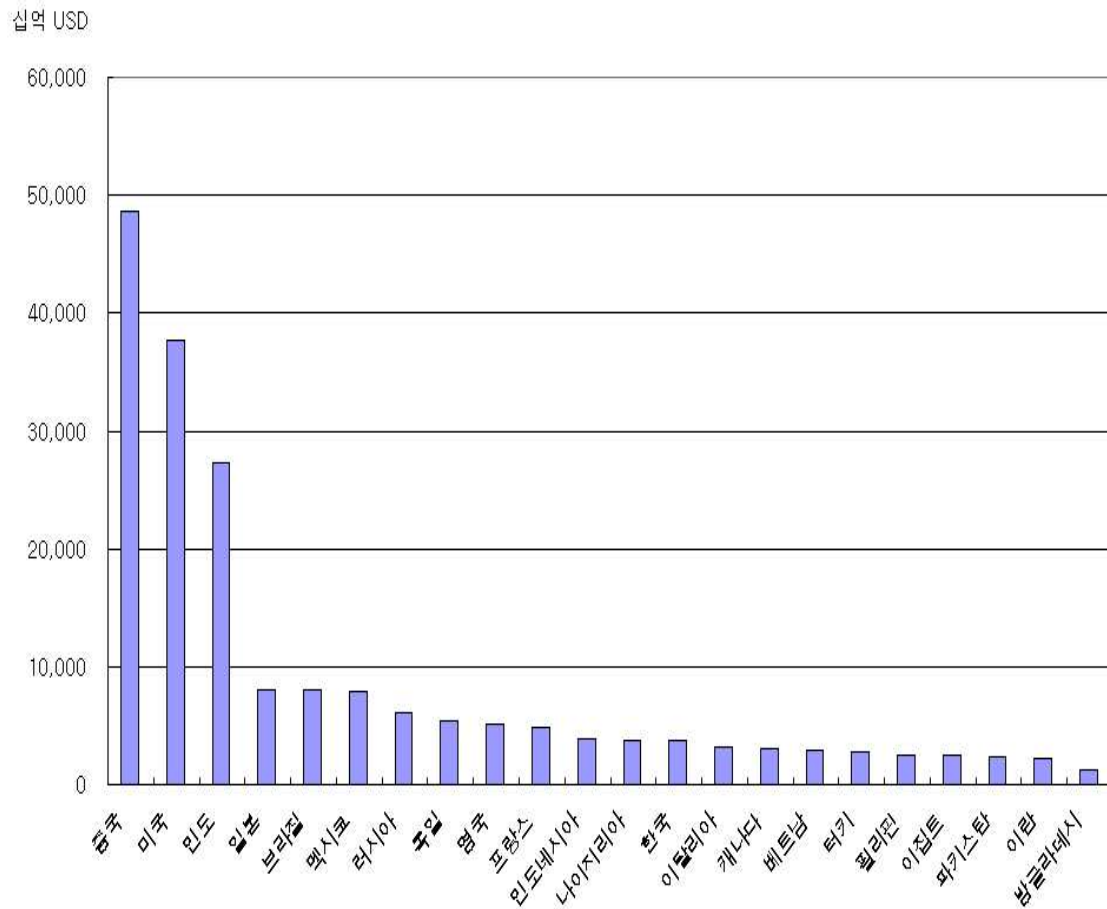


■ 중국의 실질 GDP 규모는 2030년대 후반 미국을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50년 실질 GDP는 중국 48.6조 달러, 미국 37.7조 달러, 인도 27.2조 달러의 순이 되고, 우리나라는 3.7조 달러로, 인도네시아 3.9조 달러, 나이지리아 3.7조 달러에 이어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2 참고).

- 2050년 N-11 국가 중의 하나인 멕시코가 세계 6번째의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인도네시아(11위), 나이지리아(12위), 한국(13위)과 더불어 중국(1위), 인도(3위), 브라질(5위), 러시아(7위) 등 BRICs 국가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그림 2 참고).

그림 2. G7, BRICs, N-11 국가들의 2050년 예상GDP

(단위: 십억 USD)



■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2025년 51,923달러, 2050년 81,462달러로(2005년 미 달러화 기준) G7 국가의 수준에 근접하거나 능가할 것으로 예측됨(그림 3, 그림 4 참고).

그림 3. G7, BRICs, N-11 국가들의 2025년 예상 1인당 GDP

(단위: 미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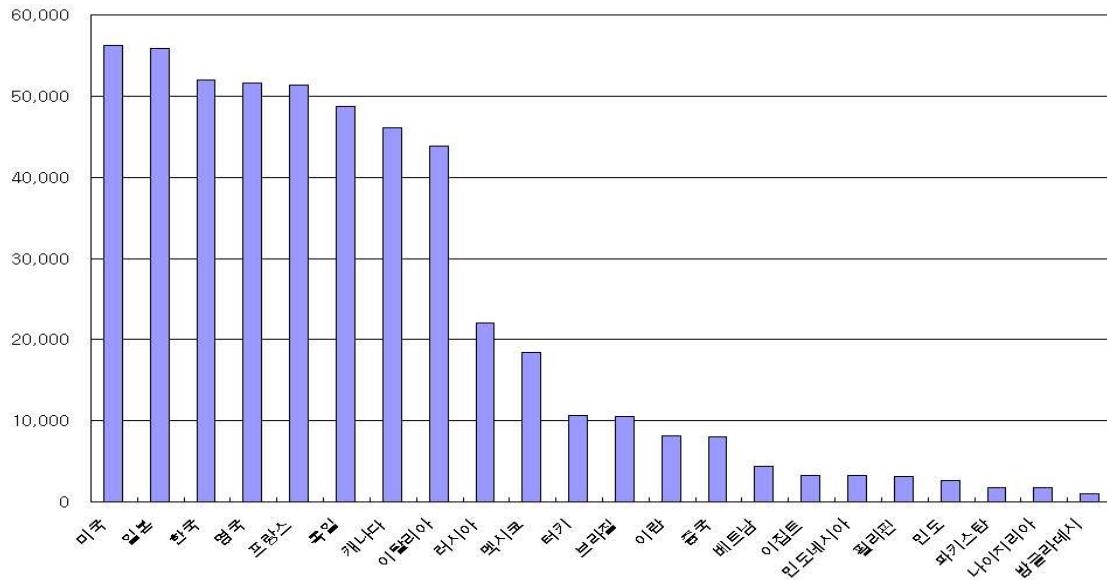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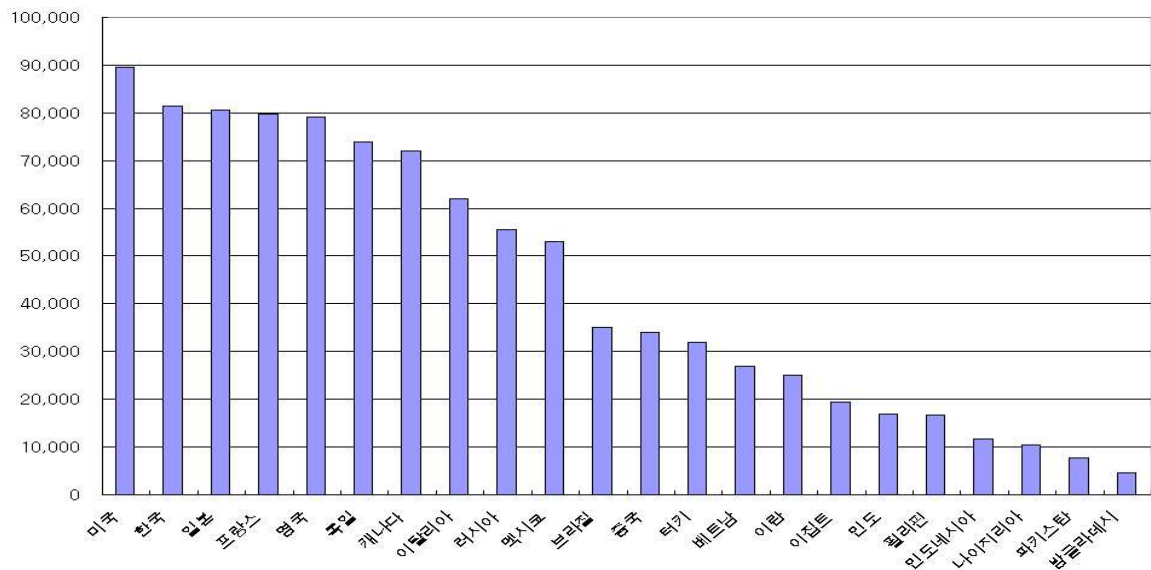


그림 4. G7, BRICs, N-11 국가들의 2050년 예상 1인당 GDP

(단위: 미 달러)



- 2025년까지는 G7, BRICs, N-11 중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등 7개국을 제외한 국가의 1인당 소득수준이 소비에 있어서 중요한 수준(sweet spot for consumption)인 3,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까지는 이들 22개국 모두의 1인당 소득수준이 4,5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그림 3, 그림 4 참고).

2. 2050년까지의 한국경제 장기전망

-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2005년 말 예상치 8,140억 달러에서 2010년 1조 2,900억 달러, 2025년 2조 6,250억 달러, 2050년 3조 6,840억 달러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세계 13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5 참고).
 - 이는 실질 GDP 증가율과 원화의 평가절상률을 감안한 예측치로서, 원화의 평가절상을 감안하여 미 달러화로 환산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2005~10년까지는 연평균 9.2%, 2010~15년 7.2%, 2015~20년 5.0%, 2020~25년 2.1%, 2025~30년 1.5%, 2030~35년 1.2%, 2035~40년 1.4%, 2040~45년 1.2%, 그리고 2045~50년 1.5%의 성장률을 시현할 전망이다(그림 6 참고).
- [그림 6]에 나타난 실질경제성장률에 대한 가정은 골드만 삭스가 경제전망을 함에 있어서 사용한 예측치로서 2005~20년 기간 중에는 원화의 평가절상률이 연평균 2.3% ~ 4.4%에 이를 것임을 가정함.

그림 5. 우리나라의 실질 GDP 전망치

(단위: 미 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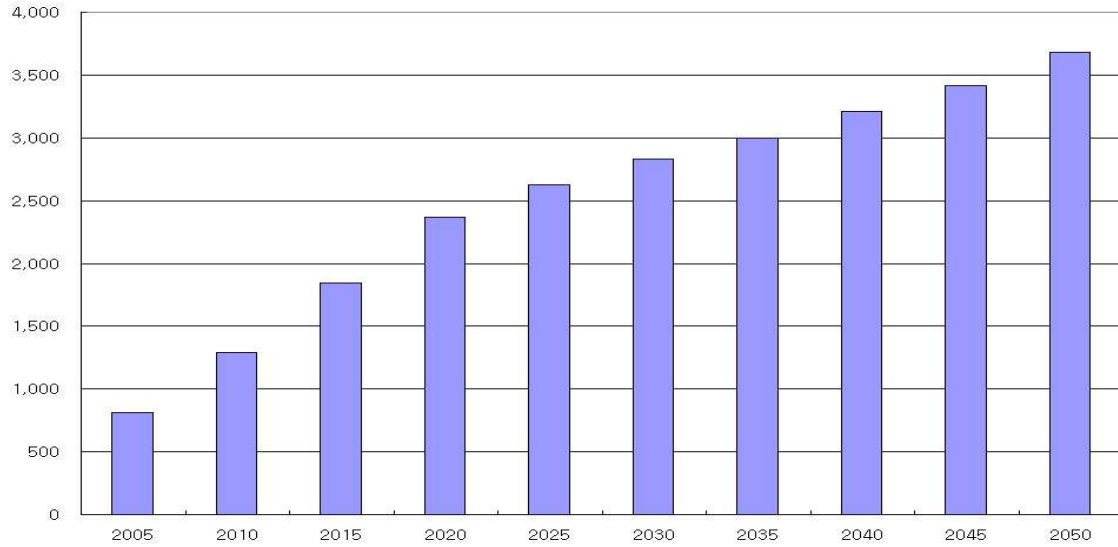


그림 6.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

(단위: %)



■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5년 16,741달러에서 2010년 26,028달러, 2025년 51,923달러, 2050년 81,462달러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미국의 89,663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그림 7 참고).

- 이는 원화의 평가절상과 실질경제성장에 따라 2050년 세계 13위권으로 경제규모가 증가하고, 2025년 5,055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의 절대규모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5년 4,862만 명에서 2050년 4,522만 명으로 7%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됨(그림 8, 그림 9 참고).

그림 7.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GDP 전망치

(단위: 미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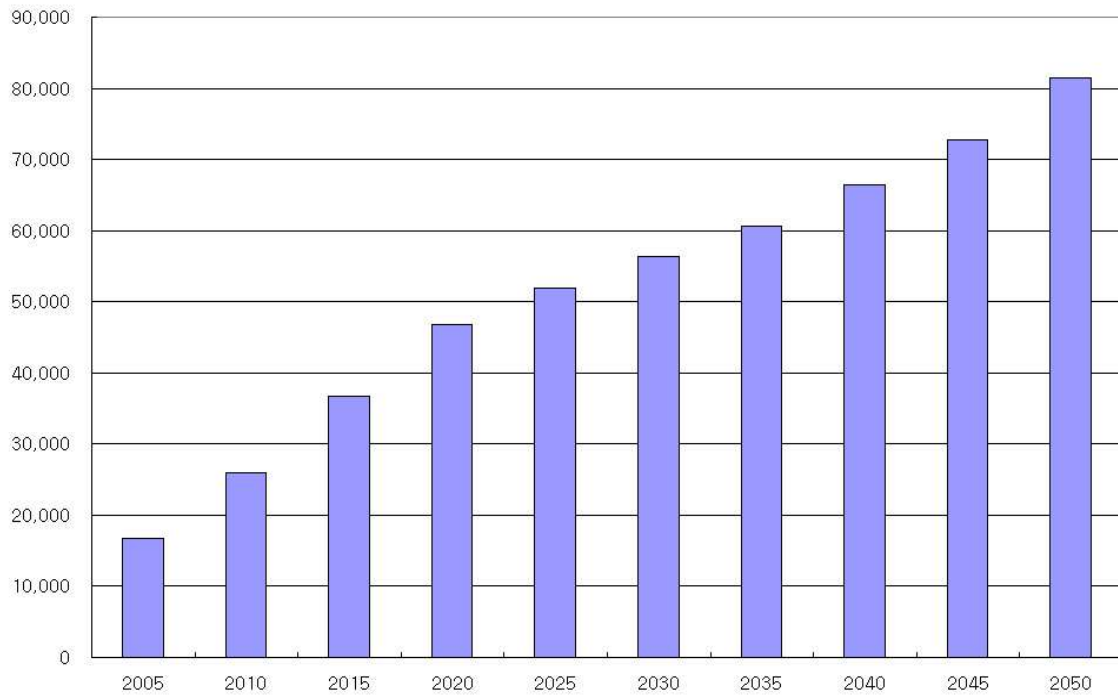


그림 8. 우리나라의 인구 전망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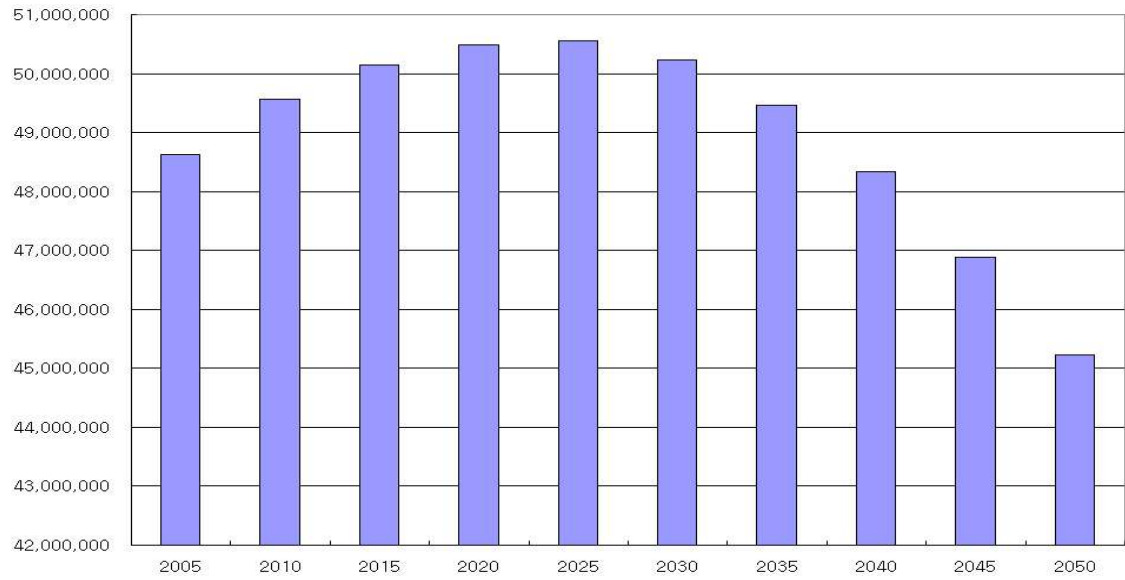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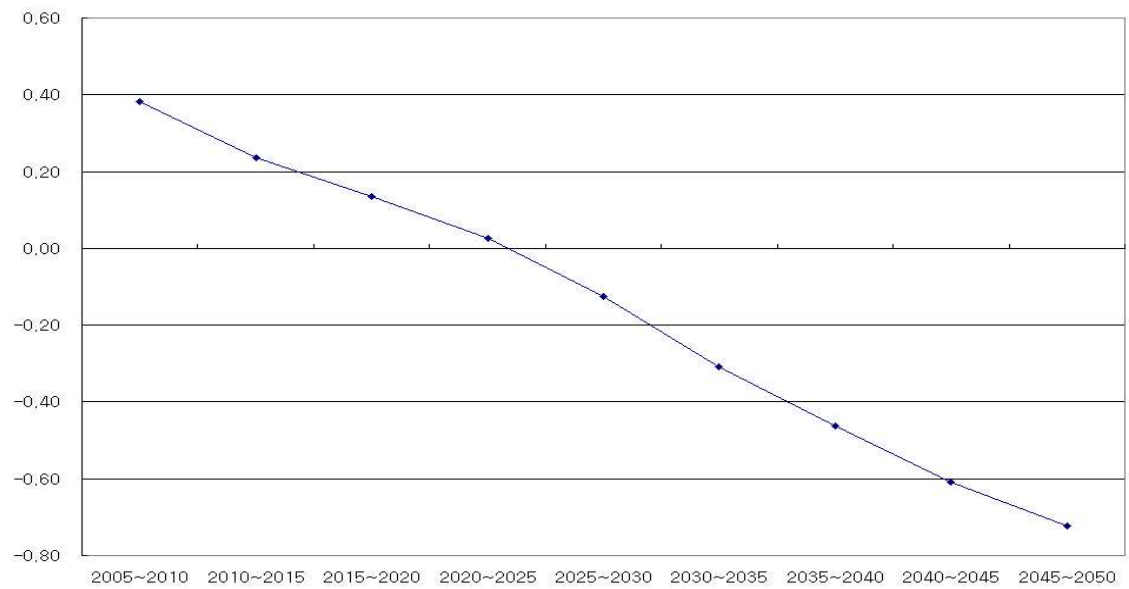


그림 9.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 전망치

(단위: %)



3. 성장잠재력지수(Growth Environment Score)

■ 골드만 삭스는 각국의 성장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성장잠재력지수(Growth Environment Score)를 개발함.

-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여러 연구로부터 13개의 요인들을 선별함.
- 13개의 요인들을 0~10으로 점수를 부여한 뒤, 종합적인 성장잠재력지수(GES)를 산출함. 성장잠재력을 최저 0에서 최고 10으로 평가함.
-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지수는 6.9로 독일 7.0에 이어 17위를 기록하였으며, G7, BRICs, N-11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높은 성장잠재력지수를 기록한 나라는 캐나다(7.6, 8위), 미국(7.4, 10위), 독일(7.0, 16위)로 나타남.
- G7, BRICs, N-11 국가 중 [표 2]에 나타나지 않은 국가 중, 중국(5.0, 53위), 멕시코(4.6, 59위), 베트남(4.6, 63위), 러시아(4.2, 81위), 이란(4.1, 86위), 이집트(3.9, 91위), 브라질(3.8, 95위), 필리핀(3.8, 96위), 인도(3.7, 97위) 등이 100위 이내에 기록됨.

표 2. 상위 27개국의 성장잠재력지수

국 가	성장잠재력지수	국 가	성장잠재력지수	국 가	성장잠재력지수
룩셈부르크	8.0	미국	7.4	벨기에	6.5
스위스	7.9	덴마크	7.4	싸이프러스	6.4
스웨덴	7.7	뉴질랜드	7.4	영국	6.4
홍콩	7.7	핀란드	7.3	말타	6.3
노르웨이	7.6	네덜란드	7.2	에스토니아	6.2
아이슬랜드	7.6	오스트리아	7.1	일본	6.2
싱가포르	7.6	독일	7.0	프랑스	6.2
캐나다	7.6	한국	6.9	슬로베니아	6.1
오스트레일리아	7.6	아일랜드	6.7	체코	5.9

자료: Goldman Sachs, Global Economics Paper No. 134.

■ 성장잠재력지수가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력을 평가하는 지표임을 고려할 때, N-11 국가

중 한국(6.9, 17위)과 멕시코(4.6, 59위)는 2050년까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BRICs 국가들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경제로의 도약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2025년 한국은 2조 6,250억 달러의 실질 GDP로 세계 9위를, 멕시코는 2조 4,010억 달러로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됨.
- 2050년 한국은 3조 6,840억 달러의 실질 GDP로 세계 13위, 멕시코는 7조 8,738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